

다석 유영모의 평화 사상

: 국가주의적 폭력의 해체와 민주 평화 사상의 확립

박재순 (씨올사상연구소)

국문요약

유영모는 국가주의적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면서 안창호·이승훈의 민주적 국민교육독립운동을 계승하여 민주평화사상을 확립했다. 그는 국가의 절대화, 국가의 국민지배를 해체하고 국민을 국가의 우위에 놓고 국민의 주체를 실현하는 민주적 평화를 추구했다. 물질적 가치와 군사주의적 국가의 폭력과 지배에 맞서 생명의 본성과 원리를 실현하는 삶의 평화를 추구했다. 국민의 욕망과 감정을 조작하고 강화하는 국가주의를 벗어나서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르렀다. 국가주의가 조작하고 조장하는 비이성적 사상·철학·이념의 왜곡과 도착을 비판하고 사상과 철학의 회통과 해방에 이르렀다. 땅의 정복과 지배를 추구한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와 전체가 함께 실현되고 완성되며 일치되는 하늘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유영모는 통일보다 귀일을 앞세움으로써 인위적 강제적 통일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해방되고 실현되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였다.

주제어: 평화, 민주주의, 생명, 맘, 정신, 하늘, 통일

I. 시대배경과 유영모 평화사상의 특징

1. 유영모의 시대배경과 사상적 특징

다석 유영모(1890~1981)는 국가주의적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평생 동안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의 식민통치, 1~2차 세계대전, 남북분단과 전쟁, 5·18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국가주의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야만과 폭력을 보았고 1~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국가주의적 광기와 혼란을 느꼈고 남북분단과 전쟁에서 국가주의적 폭력의 잔혹과 파괴를 겪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 속에서 그는 기독교신앙, 과학적 진리정신,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민주 평화의 정신과 사상을 확립하는데 힘썼다.

그는 나라가 주권을 잃었던 1905년에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고 서구 정신과 문화를 익혔으며 경신학교에서 기독교사상과 과학을 배웠다. 1910~1912년에 오산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서 가르쳤다. 오산중학교는 안창호가 조직한 신민회의 강령과 목적에 따라 이승훈이 세운 학교로서 민주정신, 민족정신, 진리정신이 사무친 학교였다. 안창호와 이승훈은 민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깨워 일으켜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독립운동을 일으켰다. 민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받들어 섬기면서 깨워 일으키려 했던 교육독립운동은 삼일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승훈은 삼일운동을 이끌었으며 함석헌은 삼일운동에 참여했다가 오산중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친 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다. 삼일운동 직후에 오산중학교에서 유영모와 함석헌은 교장과 학생으로 만나서 사제관계를 맺었다. 70대 초반에 유영모는 이승훈과 함석헌이라는 두 벽 사이

에서 살았다고 고백하였다.¹⁾ 이러한 그의 고백은 그의 삶과 정신이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임을 말해준다. 그는 신민회, 오산학교 삼일독립운동을 움직인 민주정신에 사무쳐서 살았으며,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의 정신사적 흐름 속에서 민주정신과 평화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1912년에 일본 도쿄에 유학하여 물리학교를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을 받은 후 깊은 고민 끝에 대학공부를 포기하고 농사지으며 살기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일본제국시대의 대학 이념은 부국강병과 입신양명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남에게 일시키고 놀고먹으며 족보 자랑하는 양반도덕으로 망했다고 보았다. “지식을 취하려 대학에 가는 것은 편해 보자, 대우받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은 양반사상, 관준민비사상입니다.” 그는 “이마에 땀 흘리며 사는 농부”를 이상으로 알았다. 이마에 땀 흘려 일해서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돕고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다.²⁾ 지배와 수탈을 통해 부국강병을 추구한 국가주의의 폭력에 맞서 그는 일하며 섬기는 평화의 삶을 추구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집은 자기가 지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과 더불어 살려고 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노동자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부자(富者)의 차림을 하고는 못 나가겠습니다.”³⁾ 그는 철저하게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과 더불어 살려고 하였다. 권력과 부를 위해서 위로 올라

1) “서(西)에 함옹이 있으면 동(東)에 남강선생이 있어 커다란 벽 둘레 안에 내가 있다고 믿었다오.” 유영모, “제자 함석헌을 말한다,” 『올다이제스트』 (1964년 12월호), 김홍호 편, 『多夕日誌 (上)』 (영인본, 1982), p. 688. 이승훈과 함석헌이 다석의 벽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다석의 정신세계를 지켜주고 다석이 의지하는 존재였음을 밝힌 것이다.

2)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서울: 두레, 2001), p. 204.

3)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서울: 두레, 2001), pp. 227~228 참조.

가는 대신 참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역사와 사회의 바닥으로 내려간 유영모는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민중에 대한 국가주의적 지배와 폭력을 해체하고 민중과의 화해와 평화에 이르렀다.

2. 국가주의적 평화에서 민주적 평화로

부국강병을 추구한 제국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룩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가져왔지만 지배와 정복, 억압과 수탈의 폭력을 내포한 평화다. 로마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룩한 ‘로마의 평화’는 전쟁이 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과 수탈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 민중에게는 참된 삶의 평화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의 평화일 뿐 역사와 사회의 바닥에서 고통당하는 대다수 민중의 평화가 아니었다. 나라를 잃고 헤매며 강대한 제국들의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평화 ‘샬롬’(Shalom)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조화, 충만, 완전, 번영, 복지, 평안’을 의미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삶의 기쁨과 실현이었다.

민중에게 참된 평화는 삶의 충만한 실현과 완성이다. 다석의 제자로서 평화운동에 앞장섰던 함석헌은 평화를 삶의 역동적 실현으로 보았다. 함석헌은 평화를 폭력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그 폭력의 구조를 깨트리고 일어나는 생명운동으로 파악하였다. 함석헌에 따르면 평화는 “씨올(grassroots)이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의 평(平)이란 글자는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평화의 평(平)이란 글자는 “막힌 기운을 활짝 열어 젖혀서 쭉쭉 발산되도록 하는 뜻”을 가진 것이며 “단순히 기계적 물리적 정지상태라기 보다는 간히고 늘리는 기운을 헤쳐서 자유롭게 발산시킨 때에 오는 시원한 정신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격동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것”, “속 정신이 활발

하게 피어오르는 것”이다.⁴⁾

사회역사적 폭력의 구조를 깨트리고 민중의 삶을 실현하고 펼치는 것으로 평화를 이해하는 함석헌의 평화이해는 민중의 삶 속에서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민주적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다석의 평화이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유영모와 함석헌의 이런 평화이해는 저명한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평화이해보다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다. 요한 갈통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였다.⁵⁾ 구조적 폭력은 기아, 빈곤, 의료시설부족, 인종차별, 무질서, 환경오염, 여성차별, 종교 갈등을 포함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평화는 생명과 정의의 충만한 실현(살림)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갈통의 평화이해가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자의 객관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유영모와 함석헌의 평화이해는 민중의 삶 속에서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해가는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유영모가 살았던 한국현대사는 봉건왕조의 신분적 체제에서 벗어나 민의 주체를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국가주의적 폭력에 맞서 민의 주체적 삶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었고 국가 민족의 지역적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나 동서정신문화가 합류하여 세계 보편적 시민정신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그의 평화사상은 낡은 봉건적 신분질서와 사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과학적인 주체적 정신을 확립하는 해방의 사상이고 국가주의적 폭력에 맞서 민의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실현해가는 정의로운 삶의 사상이고 민족 국가의 지역적 문화적 한계(편견)를 넘어서 소통과 일치를 추

4) 함석헌, “세계구원과 양심의 자유,” 『함석헌전집』 9권 (서울: 한길사, 1983), p. 293.

5)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ed.) Matthew Evangelista, *Peace Studies: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1, (New York: Routledge, 2005), p. 27;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1966), 2ff.

구하며 세계 보편적인 사상과 정신을 확립하는 대중합의 사상이었다.⁶⁾

Ⅱ. 평화사상의 내용

국가주의 폭력을 극복하고 민중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유영모의 평화사상은 민의 평화사상이고 삶의 평화사상이었다.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삶의 주체인 맘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맘의 평화를 이루려면 맘의 핵심이고 주체인 정신(생각)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또 정신의 평화를 이루려면 정신의 근원과 목적인 하늘(神)의 평화에 이르러야 했다. 따라서 그는 민, 삶, 맘, 정신, 하늘의 평화를 추구했다. 그의 평화사상을 민의 평화, 삶의 평화, 맘의 평화, 정신의 평화, 하늘의 평화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1. 민의 평화: 서로 주체의 확립과 평화

다석이 추구한 민의 평화는 국가주의적 평화와 대립된 개념이다. 국가주의는 민을 국가의 구성요소와 기능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이념을 민보다 우위에 둔다. 민은 국가의 이념과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힘에 지나지 않는다. 민은 제국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이거나 국가의 산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력이며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민주 국가에서 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과 주체이며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민이 국가의 실

⁶⁾ 동서사상을 회통하는 유영모의 민주평화철학에 대해서는 박재순, 『다석 유영모-동서사상을 아우른 생명철학자』 (서울: 홍성사, 2017) 참조.

체일 뿐 아니라 중심과 목적이다. 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자체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원천이다. 민은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철저한 민주주의자였던 유영모에게는 민이 곧 나라였다. 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와 나라를 직결시켰다.⁷⁾ 그는 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가 주체로서 자기선언을 한 것이 나라라고 하였다. ‘나’가 ‘나!’라고 한 것이 ‘나라’라는 것이다.⁸⁾ 민과 국가를 직결시킴으로써 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와 폭력은 해체된다.

민을 국가의 실체와 주체로 보는 다석의 평화사상은 민을 국가의 구성요소와 기능, 힘과 자원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평화사상과 대립된다. 부국강병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고 희생시키는 국가주의 권력은 민의 평화를 해친다. 국가가 생겨난 고대 국가사회 이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은 국가권력의 통치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민을 국가의 통치(정치)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근현대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이성적 통치를 말한 플라톤에게서도 민은 언제나 통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민본사상과 역성혁명을 말한 맹자의 경우에도 민은 통치의 대상일 뿐 통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부국강병을 내세운 국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민은 국가의 구성요소와 자원으로 통치의 대상이었다.

국가주의적 폭력을 해체하고 민의 평화를 이룩하려면 민을 국가의 주체로 확립하는 사상과 철학이 요구된다. 역사와 사회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근현대의 개념이다. 동서양 어디에도 역사와 사회의 주체를 나타내는 개념은 없었다. ‘主體(주체)’란 말은 정치, 사회, 교육, 종교, 철학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서

7) 유영모, “굿 끝 나 말씀,” 『多夕日誌(上)』, p. 736.

8) 유영모, “‘나!’라며 나아온 ‘나’와 ‘나!’라며 나아온 ‘남’이 서로 엇 바뀔 때 마다 ‘나는 나라!’고(1963.7.26.),” 『多夕日誌(中)』, pp. 475~476.

양에서 주체를 나타내는 ‘subject’는 고대와 중세의 용어다. ‘아래 던져진, 아래 놓인’의 뜻을 가진 ‘subject’는 지배 권력과 체제에 예속된 신민(臣民)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에도 동양에도 주체를 의미하는 말은 없었다.

한국에서 민의 주체를 확립해간 사상가는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이다.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처럼 ‘나’란 말을 주체의 의미로 강조하고 앞세우고 중심에 놓은 사상가는 없다. 특히 유영모는 ‘몸나’, ‘맘나’,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서의 ‘제나’, 열과 혼의 주체로서의 ‘얼나’를 말했고 ‘나’가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⁹⁾ 그리고 ‘나’가 타자에 대하여 무한히 열린 개념으로서 ‘우리’와 일치하고 통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내가 참된 나가 될 때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유영모는 민의 평화를 위해서 민을 국가의 주체로 확립했을 뿐 아니라 민의 존엄과 가치를 밝혔다. 민을 나라의 중심과 꼭대기로 볼 때 국가주의적 폭력을 해체하고 민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그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와 집을 짓고 옷감을 짜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국가를 먹이고 돌보는 부모라고 하였다. 통치자인 왕과 관료는 부모이고 민은 자녀라고 본 전통 유교의 관점을 뒤집어서 유영모는 민이 나라의 부모라고 하였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우리나라 농부는 우리의 어머니시다.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듯이 농부는 농사를 지어준다. 마음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이는 우리의 어머니다. 땀 흘려 김매는 농부는 아버지의 상(像)과 같다.”¹⁰⁾ 민을 나라의 부모로 보는 관점을 그는 『대학(大學)』의 ‘친민(親民)’을 ‘씨알 어뵈’(민을 아버지 뵈옵듯 함)으로 풀이함으로써 표현하였다. 다석이 민을 국가의 부모로 이해한 것은 국가권력과 민 사이의 적대

9)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서울: 두레, 2002), p. 108.

10) 박영호 엮음,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 씨알의 메아리』 (서울: 홍익재, 1993), p. 180.

와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일치에 이른 것이다. 민을 국가의 부모로 이해할 때 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억압과 지배는 해소되고 국가권력은 민을 섬기고 받들고 돌보는 도구적 기능과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배와 정복을 추구하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배 권력층의 관점에서 보면 민은 국가권력체제의 바닥에서 힘들고 성가신 일을 해야 하는 하층은 존재들이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지배 엘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민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들이다. 유영모는 이러한 지배 엘리트의 관점을 철저하게 뒤집는다. 다석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햇볕에 그은 얼굴에서 노자가 말하는 진인(眞人)의 경지인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보았다.¹¹⁾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4장에 나오는 “화기광 동기진(和其光 同其塵)”(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같아짐)은 이상적인 진인(眞人)의 모습을 나타낸다. 가난하고 힘없고 어리석고 못나 보이는 농부의 검은 얼굴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봄으로써 다석은 국가주의적 권력의 폭력적 지배를 해체하고 민에게 최고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고 민을 국가의 중심과 정점에 둔다.

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를 해체하고 민을 국가의 중심과 절정에 놓음으로써 유영모는 국가 사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일치에 이르고 민의 평화를 이룬다. 민은 역사와 국가사회의 무거운 짐을 진 희생자들이다. 민은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외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역사와 사회를 지탱해 온 민은 억압과 수탈과 소외의 대상이었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도덕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유영모는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는 민에 대한 지배 엘리트의 오만

11)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p. 42.

한 관점을 철저하게 뒤집었다. 그에 따르면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민중이 역사와 사회의 구원자다. 그는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역사와 사회를 지탱해온 민을 인류의 구원자 예수와 일치시켰다. 고난 받는 민중은 “우리 대신에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더러움을 대신 지는 어머니, 농민, 노동자는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예수”¹²⁾다.

가난한 민중은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와 사회(국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사회를 구원하는 희생양이요 이들의 삶이 세상을 구하는 희생제사이다. 가난한 민중이 ‘고난의 종’ 메시야다. “종교가 양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짓밟는 종교가 되지 않겠나? 자본주의나 유물사상이 모두 양반종교 아니겠나? ... 세상에 예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고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놈만 가득 찼다.”¹³⁾ 서로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려다 보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흉악해진다. 서로 남의 짐을 지려 할 때 정의롭고 평화로운 밝은 세상이 온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민중이 사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사회와 역사의 죄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민중이 고난을 겪으며 신음하는 것이다. 불의와 전쟁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어디 있을까?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지식인들의 주장에서 그 지름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민중의 실상을 보고 고난 받는 민중의 신음소리와 절규를 듣는 데서 그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희생자와 피해자인 민을 끝까지 주체로 보는 유영모의 사상은 국가권력의 희생자를 타자로 본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¹²⁾ 유영모, “짐짐,” 『多夕日誌(上)』, p. 792.

¹³⁾ 유영모, “짐짐,” 『多夕日誌(上)』, pp. 791~792;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p. 564.

와 구별된다. 레비나스는 ‘존재 저편의 선’이라는 플라톤의 정식을 지표로 삼아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초월의 윤리를 제시한다. 그에게 자아는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난 의식으로서 자기의 존재에 묶여 있는 관념적 주체다. 인간의 이러한 주체는 타자를 만남으로써 자기를 초월하여 윤리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가 존재의 세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이데아의 세계를 지표로서 끌어들이지만 자기 존재에 사로잡힌 인간의 자아를 자기의 존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유대(히브리)적 ‘절대 타자의 초월적 하나님’이다. 그는 시공간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아의 윤리적 초월을 추구한다.¹⁴⁾ 그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은 신을 드러낸다. “타인은 저 높은 것(hauteur)의 현시이며, 이 현시 속에서 신은 나타난다.”¹⁵⁾ 레비나스가 존재의 동일성과 전체성을 부정하고 타자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한 것은 타자의 주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 철학은 공동체적 협동과 사귄에 이를 수 없다. 나의 이웃인 타자가 무한히 초월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한 ‘나’와 가까이 사귄 수도 없고 서로 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철학이 지닌 이런 한계는

14)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9) pp. 7~8, 148, 160~163, 215 이하 참조.

15)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 (la Haye: Maritinus Nijhoff, 1961), p. 51. (서동욱, “웁긴이 해제,”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pp. 216~217 재인용.)

16)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로서의 자아와 타자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이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이고, 이런 의미의 평등만이 약자를 착취하는 강자의 법을 폐기할 수 있다.”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 p. 190 참조. 레비나스는 주체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세계를 향유하고 즐기는 주체다. 이것은 거주와 노동을 통해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둘째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지배할 수 없는 타자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이 성립된다. 강영안, “해설: 레비나스의 철학,” 에마뉘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12), pp. 149~150.

민의 역사적 주체를 몰랐던 고대세계의 플라톤철학과 히브리신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은 구체적 인간의 역사 사회적 존재를 부정하고 초월하는 이성적 이념(이데아)을 앞세워 민에 대한 이성의 지배와 통치를 주장했다. 제국주의적 폭력 앞에 무력했던 히브리인들은 무력한 자신들을 구원할 절대적 초월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 인간의 역사적 존재와 주체를 부정하는 이런 고대의 철학과 사상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서로 주체로서 민의 정의와 평화에 이를 수 없다.

타자와의 만남에서 자기 존재로부터의 초월을 추구한 레비나스와는 달리 유영모는 자기 존재의 속에서 자기부정과 초월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서로 주체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화해와 해방에 이른다.¹⁷⁾ 주체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한 경험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레비나스는 독일의 제국주의적 폭력을 무력하게 개인으로 체험했다. 일본 제국주의적 폭력에 맞서 민족을 주체로 깨워 일으키는 안창호·이승훈의 민족독립교육운동에 참여했던 유영모는 근현대의 한국 민중과 함께 자기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그리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 국가주의적 폭력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극복하였다. 삼일혁명과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민은 자기의 존재와 삶뿐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다.

민을 생명과 역사의 창조자적 주체로 파악한 유영모는 인식주체뿐 아니라 인식대상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깊이와 존엄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과 생명체뿐 아니라 만물, 물체까지도 이성적 인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한없는 깊이와 값, 의미와 연관을 지닌 주체로 이해했다.¹⁸⁾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서로 주체로 보는 다석의 인식론과 존재론은 물체뿐 아

17) 유영모, “매임과 모음이 아니!” 『多夕日誌 (上)』, pp. 742~743.

18) 유영모, 『다석강의』, pp. 237, 250.

나라 일, 기관, 조직, 단체까지도 존재의 깊이와 역사를 가진 주체로 보게 함으로써 나와 상대, 주체와 대상을 본성과 이치에 따라 서로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

2. 삶의 평화: 알맞게 사는 중용의 평화

1) 국가주의 폭력과 생명의 대립

생명은 스스로 하는 자발적 주체를 가진 것이며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자발적 주체로서의 ‘나’는 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초점을 가진 것이고 생명의 유기체적 전체성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생의 원리와 본질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이며 지배와 정복을 추구하는 국가주의의 조직 및 이념과 상충된다. 스스로 하는 주체와 전체의 통일인 민의 삶을 자원과 병력으로 보고 동원하고 통치하는 국가는 반드시 민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한다. 민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국가주의적 국가는 필연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대변하는 조직이며, 합법적 폭력(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민의 자발적 주체성을 억압한다.

욕망, 감정, 이성을 인간 존재의 구성요소와 기능으로 파악한 플라톤과 달리 유영모는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몸, 맘, 얼을 생의 서로 다른 차원을 지닌 주체와 전체로 파악하였다. 몸과 맘과 얼이 서로 다른 주체와 전체로서 저마다 그리고 함께 실현되고 완성됨으로써 인간 안에서 내적 통일과 평화에 이른다고 본 것이다. 인간 존재의 내적 통일과 평화의 원리를 유영모는 ‘몸성히, 맘놓아, 얼(뜻)태워’로 제시하였다.¹⁹⁾ ‘몸성히’는 몸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다. 몸성히는 몸을 주체와 전체로

19) 유영모, 『다석강의』, pp. 223~224.

몸의 본성과 이치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다. 몸이 성하면 맘이 편안하고 놓이게 된다. 그러나 몸이 성한 것이 맘이 놓이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몸이 성하고도 맘이 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몸이 성하지 않아도 맘이 편안하고 놓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몸이 성할 때 맘이 놓인다. 맘이 놓인다는 말은 맘이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말이다. 맘이 놓인다는 것은 맘이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자유롭고 온전하다는 것이다. ‘맘 놓아’는 맘의 주체와 전체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얼 태워’는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주체인 얼과 뜻을 불태워서 자기부정과 초월을 통해서 솟아올라 나아간다는 말이다. 얼과 뜻을 불태워서 솟아올라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정신은 고양되고 정화되며 진화하고 전진한다.²⁰⁾

몸의 욕망과 맘의 감정과 지성, 얼의 영성이 저마다 주체와 전체로 존중되고 실현되며 전체가 하나로 통합될 때 평화가 온다. 몸이 성하고 맘이 놓이고 얼과 뜻을 불태움으로써 생명과 정신은 새로워지고 승화되며 역사와 사회는 고양되고 진화, 진보한다. 유영모에게 삶의 평화는 관념적이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개혁적이며 자기부정과 초월을 통해 변화와 고양을 이루는 것이다.²¹⁾ 몸과 맘과 얼이 새롭게 변화되고 고양되고 자기를 부정하고 초월하여 새롭게 태어날 때 몸, 맘, 얼의 통일과 평화에 이른다. 몸, 맘, 얼의 통일과 평화에 이를 때 인간의 삶은 이웃(타자, 적대자)과 함께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20)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pp. 71~72, 82~85.

21)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지키려하고 서양의 근현대 자연주의철학에서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만 생명진화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 유영모는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변화하고 고양되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그는 생각함으로써 생의 주체인 ‘나’를 창조하고 낳는다고 하였다. 유영모, “정(2),” 『多夕日誌(上)』, p. 740.

몸이 성하고 맘이 놓여서 얼과 뜻이 솟아올라 나아가면 민은 서로 주체가 되어 함께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올라가고 나아감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고 높여서 정의와 평화 속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2) 몸, 맘, 얼에 알맞은 중용(中庸)의 평화로운 삶

유영모는 ‘알마지’(알맞음)를 적절함과 적합함을 나타내는 말로 썼을 뿐 아니라 사물과 생명의 알맹이, 본질에 맞음을 나타내는 말로 썼다. 더 나아가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알’에 맞음이란 의미에서 알마지를 철학을 대신하는 말로 쓰기도 했다.²²⁾ 유영모는 몸, 맘, 얼에 알맞은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물질적 부와 권력, 지배와 정복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조직과 이념은 생의 본성과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생의 본성과 원리는 스스로 하는 주체의 자발성, 유기체적 전체의 통일성, 주체와 전체를 일치시키는 진화(진보)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생의 본성과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고 생의 본성과 원리에 충실하게 살려면 몸이 성하고 맘이 놓이고 뜻을 불태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몸성히 맘놓아 뜻태워 살려면 몸, 맘, 얼에 알맞게 살아야 한다. 인간 생명의 구성요소이며 주체인 몸, 맘, 얼은 수 십 억 년 생명진화와 수 백 만 년 인류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온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이면서 창조자인 몸, 맘, 얼은 깊고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면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고 통일된 것이다. 몸, 맘, 얼은 서로 다른 존재의 차원들을 가진 것이다. 몸은 물질·신체적인 생명의 차원을 가지고, 맘은 욕망과 감정과 의식을 지니고, 얼은 뜻과 혼을 지닌 것이다. 서로 차원이 다르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상충하면서도 서로 주체로서 일치하고 통일

²²⁾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pp. 179~180; 유영모, 『다석강의』, pp. 132~133.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 맘, 얼은 그 자체가 평화와 통일의 놀라운 상징이고 실재다.

몸, 맘, 얼은 저마다 속에 생명진화와 인류역사의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되고 체득한 큰 힘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평화롭고 통일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몸, 맘, 얼에 축적되고 체현된 힘과 지혜를 잘 살려내서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맘, 얼에 알맞게 먹고 자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의 몸, 맘, 얼에 알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내게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내게 알맞게 하려면 내가 먼저 알맞게 되어야 나에게 알맞게 행동할 수 있다. 유영모는 알맞게 사는 삶을 먹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몸은 과식에서 탈이 난다. 너무 적게 먹어도 몸은 탈이 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난다. 몸이 필요한 만큼 알맞게 먹으면 몸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을 함으로써 물질적 음식에 대한 의존과 집착, 물질적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때 몸과 맘속에 깊이 잠겨 있는 생명의 힘과 지혜가 살아나서 삶의 평화와 통일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은 생존의 필요와 몸의 요구를 넘어서 너무 많은 생명을 잡아먹는다. 욕심으로 먹기 때문에 과식하고 과식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도 병들어 죽어간다. 다석에 따르면 우주자연세계도 인간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 허물’(병)이 생긴다. 우주의 빈탕(허공)에 몬(물질)이 지나치게 가득차면 ‘속 허물’이 생기고 사람의 몸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 허물’이 생긴다. 그리고 이 ‘속 허물’에서 ‘속 쓰림’이 나온다. 다석은 우주자연세계도 큰 쓰림이 있고 한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석은 우주도 사람도 탈이 나면 먹기를 끊고 몸과 마음을 곧게 해야 낫는다고 보았다. “큰 빈탕에도 큰 쓰림이 있느니라. 이것이 한늘[우주의 한숨이다. 한늘이나 사람이나 탈은 고대(貞)를 직혀야만 곧힌다. 속이 쓰린 것이 낫도록 먹기를 끊는 것이 고디다.”²³⁾ 과식하는 것은 물질

의 유혹에 매이고 굴복한 것이며 물질과 물질의 유혹에 매이고 굴복하는 것은 생명의 주체적 자유와 전체적 통일을 잃은 것이다. 금식을 하면 몸과 정신의 주체가 곧고 자유로워지며 주체가 곧고 자유로워질 때 생명 전체가 통일과 평화에 이른다.

유영모는 굶을 때 생명 자체의 평화와 통일에 이를 뿐 아니라 ‘나’의 생명과 우주만물 사이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1957년 2월 2일의 일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120시간 숨만 쉬고 설교하니 입술이 마른다. 물을 먹고 자고 일어난 오늘은 펍 피곤이 풀린다. 바람이 양식이요 물이 양식인 것을 깨닫는다. 낱알이 양식이거나 못하고, 고기 약재(藥材)를 생각하는 것은 숨결과 물이 밑바탕 됨을 잊어버린 것이다.” 1960년 3월 11일에 금식한 후 느낌을 쓴 일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2~3일만 안 먹고 안 마시고 보면 살에 닿는 바람이나 낮에 닿는 물이 마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과 같이 시원하다… 저(自己)가 받을 수 있게 되는 터(환경)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빛, 소리, 냄새, 맛, 맨치[만짐], 울[이치]) 먹이(食物)가 되는 생리(生理)가 있는 것 같다.” 다석은 모든 신체감각과 얹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먹이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오늘 먹은 낱알의 힘으로 사는 이는 쉽게 지치고 병들게 되지만 몸과 마음속에 숨겨진 힘으로 사는 이는 지치지 않고 생기 넘치게 살 수 있다. 삶의 깊이에서 오는 힘과 지혜가 충만한 평화를 가져온다.

3. 맘의 평화: 가온찍기와 중도의 평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폭력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물질적인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생명과 정신,

23) 유영모, “1955년 11월 1일 일지,” 『多夕日誌(上)』, p. 76.

욕망과 감정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든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폭력은 물질적인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에 근거한다. 부와 권력을 향한 욕망과 경쟁심, 국가와 집단에 대한 충성스러운 애국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의 평화로운 삶은 실현될 수 없다. 욕망과 경쟁, 충성과 애국심이 지배하면 인간의 맘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없다. 일제 식민통치와 남북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국가주의적 욕망과 경쟁, 충성과 애국심이 지배해온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온갖 특권을 휘두르고 부당행위를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주의적 욕망과 경쟁, 충성과 애국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국가주의적 폭력과 결합된 욕망과 애국심을 해체하려면 욕망과 감정을 정화하고 승화하는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르러야 한다. 살아 있는 인간의 몸과 맘에서 욕망과 감정 자체를 제거하거나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국가주의가 조장하는 욕망과 감정은 생명과 정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해치고 파괴하는 지나친 욕망과 감정이다. 국가주의가 조장하고 강요하는 이런 욕망과 감정은 나라의 주인과 주체인 민을 나라의 종(도구)으로 만들고 서로 해치는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피해자로 만든다. 국가주의가 조장하는 욕망과 감정은 민의 자유로운 주체를 억압하고 약화시키며 국가의 전체적 통일을 깨트린다. 국가주의가 조장하는 욕망과 감정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오도하는 잘못된 의식과 관념을 낳고 잘못된 의식과 관념은 온갖 편견과 왜곡된 생각과 주장으로 이어진다.

스스로 자유롭게 욕구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이런 그릇되고 지나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에서 벗어나서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유영모는 ‘가온 찌기’를 말했다. 가온 찌기는 국가주의 폭력의 토대가 되는 그릇된 욕망과 감정, 왜

곡된 의식과 관념을 깨트리고 허물어서 참된 생명과 순수한 정신에 이르는 것이다.²⁴⁾ 그릇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이 가득할 때 맘의 가운데는 은폐되고 사라진다. 맘의 가운데(中心)를 잃을 때 자유로운 주체도 사라지고 전체를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진다. 맘의 중심은 자아의 인격적 주체가 서는 자리이며 국가 전체를 보고 느끼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맘의 중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관통하는 때의 중심이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열 수 있는 자리다. 유영모가 맘의 가운데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맘과 관련된 모든 것의 중심을 찍는 것이고 그 중심을 찍음으로써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여는 것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창조적 미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의 참된 주체와 전체에 이르는 것이며 생의 참된 주체와 전체에 이름으로써 민의 주체와 전체가 일치하는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여는 것이다.

가온찍기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중심에 이르러 가운데 길(中道)을 여는 것이다. 유영모는 ‘우리 아는 예수’라는 시에서 “예수는 믿은 이 높·낮, 잘·못, 살·죽 가운데로 솟아오를 길 있음 믿은 이”²⁵⁾라고 노래했다. 형식논리와 이해관계의 평면적 지평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하고 남보다 잘하려 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죽이면서까지 살려고 하면 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과 집단들이 평화세계로 들어가려면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 살고 죽는 비교와 경쟁, 갈등과 대립의 한 가운데로 솟아오를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낳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과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의 논리를 넘어서 그리고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폭력적 위계질서를 깨트리

24) 유영모, “굿 끝 나 말씀,” 『多夕日誌 (上)』, p. 734.

25) 유영모, “우리 아는 예수,” 『多夕日誌 (上)』, p. 921.

고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 가운데 길은 막힌 현실의 벽을 뚫고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여는 길이다.

다석은 가운데 길을 가는 기쁨과 신명을 노래로 표현했다. 다석은 ‘이 세상 중도(中道)를 사는 노래’(노래 누리 군)에서 하루를 가온 짝기로 살면 늘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자기의 날이고 영원을 사는 날”이라고 했다. 불평불만 없이 기쁘게 사는 삶이 “늘늘늘늘 늘느리야” 노랫가락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다가 올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새것, 옳은 것을 힘껏 하여… 헛것, 올것이 밝아지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²⁶⁾ 늘늘이야 생명의 춤을 추면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다.

유영모가 가온 짝기를 통해서 열어놓은 중도(中道)는 양 극단을 평균적으로 절충하고 타협한 중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와 높이에서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와 혁신의 중도다. 그것은 국가주의적 폭력이 맞서 있는 대립과 갈등, 적대와 충돌의 팍 막힌 상황에서 솟아올라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깊고 높고 창조적인 길이다. 그러한 창조적인 중도를 역사와 사회의 현실 속에서 열기 위해서 먼저 몸, 맘, 얼의 실현과 통일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열어야 한다. 가온짝기는 맘속에 하늘을 열어서 물질과 생명과 정신의 실현과 통일이 이루어져 평화로 나아가는 중도의 길을 여는 것이다.

4. 정신의 평화: 종교철학의 회통과 평화

맘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은 생각과 뜻, 사상과 이념으로 움직인다. 맘의 평화를 이루려면 정신의 평화에 이르러야 하고 정

26) 김홍호, 『다석일지공부』 제6권 (서울: 솔출판사, 2001), p. 57.

신의 평화에 이르려면 민의 주체와 국가의 평화를 실현하는 사상과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주의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국가 사회를 이루려면 국가주의 사상과 이념을 비판 극복하고 민주정신과 민주국가의 사상과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주의 폭력(지배)을 지탱하는 마지막 근거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이념의 체계, 국가주의 이념이다. 흔히 국가주의 이념은 그 지역의 인종, 민족, 종교, 문화의 전통과 감정, 사고방식과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그 지역의 종교, 문화, 역사, 민족과 결합됨으로써 국가주의 이념은 더욱 강화된다. 국가주의 폭력을 극복하려면 국가주의이념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주의 이념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지역의 종교, 문화 사상의 역사적 지역적 한계와 문제를 비판하고 극복하여 세계시민적 보편 정신과 사상에 이르러야 한다. 국가주의 이념과 결합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 사상은 한계와 제약을 가지면서도 지역과 전통을 넘어서는 보편적 의미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의 종교 문화적 사상과 정신을 비판하면서도 그 사상과 정신 속에 내포된 보편적 의미와 진리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근현대는 민의 주체적 자각(민주화)이 이루어지고 동서의 정신 문화가 합류하는 시대였다. 시대정신에 충신했던 유영모는 철저한 민주정신에 비추어 국가주의 이념을 해체하고 동서의 전통 종교문화 사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동서의 사상과 철학을 회통하고 민주적, 과학적, 세계시민적 사상과 철학을 확립했다. 동서 사상을 회통하는 유영모의 민주 평화사상은 국가주의 이념을 해체한 것이면서 동서의 낡은 정신과 사상을 비판하고 극복한 것이다. 그의 평화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주의 이념을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를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이념이다. 국가주의는 민 사람을 국가의 부분이나 인적 자원으로 여기고 민을 국가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동원하고 소모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 위에 있고 민은 국가에 예속된다. 국

가와 국가권력을 신성화, 절대화한다. 또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는 물질적 부와 군사력에 의존한다. 물질적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의존하면서 민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동원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는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물질적 부와 힘을 숭상하는 우상숭배다. 인간이 만든 국가와 국가권력을 신성화, 절대화하는 것은 창조자인 인간이 피조물인 국가와 국가권력에 굴복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모독이다. 국가의 물질적 부와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희생하는 국가주의는 물질에서 생명, 감정과 의식을 거쳐 이성과 얼로 진화 향상해온 생명진화와 인류역사의 근본적인 흐름과 방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민이 곧 나라이며 천자(天子), 최고 통치권자라고 봄으로써 유영모는 국가주의 이념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해체했다. 그는 민을 나라의 어버이라고 함으로써 민을 국가의 자원이나 동원 대상으로 보는 국가주의 이념을 부정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물질적 힘과 부를 위해 인간을 동원하고 부리는 것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민을 곧 나라라고 보고 나라의 어버이와 주권자(최고통수권자)로 보는 민주적 국가에서는 민이 국가의 주인과 주체이며 국가는 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받드는 기관이고 기구다. 민, 사람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다. 민이 국가보다 위에 있다. 민의 창의적 자유와 사권을 위해 국가는 존재한다. 민의 생명과 자유, 뜻과 사권, 정신의 고양과 향상을 위해 국가는 존재하고 움직인다. 국가는 민을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기관이다.

국가와 국가권력을 신성화, 절대화하는 국가주의 이념은 비민주적 비과학적인 낡은 인간관과 세계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유영모는 국가주의 이념의 토대가 되는 반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지역주의적인 낡은 사상과 정신을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동양의 주역, 음

양오행, 풍수지리, 운수론 등 비과학적, 운명론적 사상들을 비판했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에 대한 물질적 요소들과 힘들의 지배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서 무위자연, 무아, 천인합일처럼 보편적 전체에 개인을 귀속시키는 유불도의 전통사상을 비판하고 넘어서려고 하였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인식하는 개인의 인식론적 주체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윤리적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약용도 개인을 보편적 전체에 예속시키는 성리학(천인합일), 불교(무아사상), 도교(무위자연)를 비판하였다.²⁷⁾ 유영모는 생각하는 개인의 창조적 주체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와 국가(세계)의 통일적 전체와의 일치를 추구했다. 그는 무극(無極)과 천상(天上)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세계의 음양오행에 매달린 것이 동양사상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을 찾다가 멸망한 것이다… 유교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우주의 근원인 무극(無極)을 잊어버리고 천상(天上)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⁸⁾ 그는 주역은 “내 생명을 내가 산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주역을 결정론이나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했다.²⁹⁾

유영모는 신화와 교리에 매인 기독교의 맹목적 신앙을 비판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의 삶과 정신을 이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³⁰⁾ 동양의 신비적 운명론적 사상과 마찬가지로 신화와 교리에 매인 기독교의 반지성적 신앙은 쉽게 국가주

27) 마테오 리치, 송영배 외 역, 『천주실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73~4, 103, 192, 200, 221, 348; 윤사순,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열음사, 1986), p. 138; 김영일, 『丁若鏞의 上帝思想』 (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 83, 87, 96~97;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 影印刊, 1982), II, 36/24a.

28) 박영호 풀이, 『다석 유영모 명상록』 (서울: 두레, 2001), p. 330.

29) 유영모, 『다석강의』, p. 425.

30) 유영모, 『다석강의』, pp. 178, 183, 902~903.

의 이념과 결합된다. 그는 서양의 이성철학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삶과 정신의 중심에 놓았다. 그에게 생각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사유가 아니라 생명의 자각이고 삶의 근본행위다. 더 나아가서 생각이 나를 낳는다고 함으로써 생각하는 이성을 최고로 강조하였다.³¹⁾ 생명의 자각과 근본행위로서 생각은 역사와 사회의 현실에서 단절된 사변(思辨)이 아니라 민의 자아를 혁신하고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변혁하고 창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할 수 있었다. 민은 스스로 생각해야 살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개인의 주체를 약화시키는 동양의 운명론적 사상과 보편주의적 사상을 넘어서고 서양의 신화적 교리적 기독교 신앙과 사변적 이성철학을 비판한 유영모는 동서의 정신과 사상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동서의 정신문화를 회통하고 융합하는 민주적이고 세계시민적인 철학을 형성하였다. 전통적인 종교문화와 사상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유영모는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세계인류가 국가와 민족과 종교문화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간의 정신을 움직이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다. 사상과 이념이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고 세계 보편적으로 바르게 확립될 때 국가주의 폭력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국가주의 이념과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철학적 윤리적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철학적 윤리적 기초는 사변적 지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그것은 삶과 역사의 깊이에서 체험적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닦여져 나와야 한다. 다석은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민주정신, 과학

31)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pp. 81-82, 84.

정신, 세계보편정신을 체화함으로써 그리고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동서의 서로 다른 종교사상과 철학의 회통에 이르렀다.

한국현대사에서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합류하였다. 한반도는 동서문화가 합류하는 두물머리였다. 유영모는 동서문화의 합류와 민주화 과정으로 전개된 한국근현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에 충실하게 살았다. 유영모의 삶과 정신 속에 시대정신과 역사가 온전히 스며들 수 있었다. 유영모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해 충실하게 사유했던 독보적인 사상가다. 동서정신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추구한 철학자이고 깊은 영성을 지닌 풀뿌리 민주철학자다. 그는 평생 “동양 문명의 뼈에 서양 문명의 골수를 넣으려” 했고, 동양정신문화와 서양정신문화가 서로 대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융합을 추구했다.³²⁾ 유영모의 삶과 정신 속에서 동양의 유불선과 서양의 기독교정신, 이성 철학, 민주정신이 합류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와 서양철학의 로고스(이성, 생각), 기독교의 말씀(사랑), 동아시아의 길(道), 한민족의 한(韓; 크고 하나임)을 통합하여 대종합의 사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동서문화의 만남과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대종합의 사상은 전쟁과 폭력을 조장하는 국가주의 이념과 사상을 극복하고 민주국가의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하늘의 평화: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상생평화의 통일세계

순수 이성은 생명과 정신의 주체와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다.

³²⁾ 유영모, 『다석강의』, p. 310.

순수한 이성은 땅의 물질세계를 평면적으로 초월한다. 평면적으로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은 물질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물질세계의 주체와 전체, 깊이와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완성할 수 없다. 더욱이 생명과 정신의 주체와 전체를 순수이성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현하거나 완성할 수 없다. 이성은 비과학적 숙명론적 낡은 의식을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욕망과 감정을 승화하고 고양시켜서 민의 주체와 국가의 전체를 일치시키는 정의와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수 없다. 과학적 이성은 국가주의 이념을 해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자아를 혁신하고 고양시켜서 정의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민주국가를 형성하도록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적 이성을 넘어서서 주체와 전체를 함께 실현하고 완성하는 영성적 사유가 요청된다. 영성적 사유는 땅의 물질적 차원을 초월하는 하늘의 깊고 높고 큰 세계를 드러내는 사유다.

그리스로마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그리스로마인들은 하늘을 거세하고 전복한 후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가를 세웠다. 그리스로마의 건국신화가 시사해주듯이 그리스의 철학은 하늘의 영성과 영감이 제거된 에로스와 로고스의 철학이다.³³⁾ 에로스는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과 충동이며 로고스는 논리·계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과 사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인 철학은 잘못된 욕망과 지나친 감정을 승화 고양시켜 평화와 통일에 이를 수 없다. 로고스는 에로스의 충동에 휘둘리는 종이거나 에로스를 통제하는 압제자다.

그리스로마의 건국신화와는 달리 한국의 건국신화는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높은 뜻과 이치를 실현하는 국가를 세웠다고 말한

33) 에로스와 로고스의 철학에 대해서는 남경희,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 (서울: 아카넷, 2006), pp. 178~179, 183~184 참조.

다. 한민족은 높은 산에서 하늘을 우리러 제사하는 종교문화전통을 오랜 세월 지켜왔다.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염원한 겨레다. 유영모는 사람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곧게 섬으로써 사람이 되었다고 보았다. 하늘에 머리를 둔 사람은 하늘을 그리워하고 탐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³⁴⁾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나아간다.’는 말이 유영모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³⁵⁾ ‘하늘’은 만물과 생명과 정신의 통일을 나타낸다. 인간의 생명과 정신 속에서 몸, 맘, 얼의 통일적 초점을 가진 것이 인격, 주체, ‘나’이고 인간의 생명과 정신 밖에서 사회와 역사가 서로 이어지고 소통하여 크게 하나로 통합된 것이 전체(국가, 세계)다. 인간의 안과 밖에 ‘하나’(하늘)가 있다.

다석은 평생 하나를 추구하고 하나에 이르고 하나가 되려고 하였다. 유영모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철학의 원리는 ‘하나로 돌아감’(歸一)이다. 하늘은 큰 하나, 하나이신 임,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늘은 한없이 깊고 크지만 쪼갤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전체 하나다. 하늘은 개인의 주체와 세상 전체가 하나로 되는 자리다. 하늘은 주체의 깊이와 자유에서 전체의 하나 됨에 이를 수 있는 곳이다. 하늘,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주체로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이른다. 저마다 하늘의 하나로 돌아가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서로 자유로우면서 큰 하나 전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주체와 전체가 일치되는 하늘을 ‘큰 나, 참 나, 한 나’라고 하였다. 하늘, 한(하나님)을 유영모는 평생 구도자적으로 추구하였다. 그의 일상생활은 ‘하나, 하늘’에 이르고 하늘을 모시고 하늘 속에서 자유롭게 살려는 구도자적 삶이었다. 그는 앉거나 서거나 밥을 먹거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

34) 유영모, “꽃피,” 『多夕日誌(上)』, pp. 825~828.

35) 유영모, “매임과 모음이 아니!” 『多夕日誌(上)』, p. 744; 유영모, “소식2,” 김홍호 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서울: 솔출판사, 2001), pp. 347, 349~350.

나에 이르고 하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는 하늘, 참된 하나를 자신의 속의 속에서 찾고 발견하였다. 속의 속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하늘로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자아의 속의 속에서 하늘(하나)로 초월함으로써 참나(주체)가 되고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는 전체에 이를 수 있다.

1) 통일보다 귀일이 먼저다

1955년 6월 2일 일지에 다석은 ‘통일’이란 한시를 썼다.

統一爲言人間譚(통일위언인간와) 歸一成言天道誠(귀일성언천도성)
太初一命宗教義(태초일명종교의) 咸有一德信仰城(함유일덕신앙성)

이것을 풀어 보면 이렇다: “통일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면 인간은 더욱 어긋나고, 하나로 돌아가 말씀을 이루면 하늘 길을 정성으로 가게 된다. 태초의 한 목숨이 종교의 깊은 뜻이고 함께 한 가지 덕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의 틀이다.”

다석은 통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사람이 통일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일은 귀일(歸一)이다. “나는 통일은 싫어한다. 통일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일(歸一)이라야 한다.”³⁷⁾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편견과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과 관점에 매여서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일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지배를 전제한다. 다석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통일을 싫어한 것은 타자의 ‘스스로 함’과 다름을 존중했기 때문이다.³⁸⁾

36) 유영모, “하나,” 『多夕日誌(上)』, pp. 759~760.

37)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p. 393.

서로 다른 주체들이 저마다 하나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통일에 이를 수 있다. 귀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은 지배와 정복의 통일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실현되고 완성되며 상생과 공존에 이르는 평화롭고 풍성한 통일이다. 하늘에 이르러 빈탕한데의 자유를 가지면 몸은 몸대로 되고 맘은 맘대로 자유로워 몸과 맘이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되며 몸·맘·얼의 평화로운 통일에 이른다.³⁹⁾

2)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상생평화의 통일세계

유영모 사상의 중심에서 전체를 꿰뚫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이다. ‘하나’를 찾고 ‘하나’로 돌아가자는 것이 다석 사상의 시작과 끝이다.⁴⁰⁾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 속에서 물건과 인간의 생명이 완성되고, 자유와 공평의 대동세계가 열리고, 상생평화의 통일세계가 시작된다. 유영모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과 사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 곧게 서서 하늘로 솟아오름으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하나 됨에 이르는 것이다. 상대세계의 물질에 집착하고 향락하면서 뱀처럼 땅 위를 기면, 혼란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 위로 솟아오를 때 열리는 하늘나라는 “... 곧대(眞)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다. 그것은 하나로 통일된 한테나라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향해 곧게 올라갈 때 남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남과 하나 될 수 있다.⁴¹⁾ 서로의 슬픈 심정과 아픈 처지를 하나로 경험할 때 자유와 공평의 대동세상이 열린다.

상대적 유무의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면 천국이다. 다석은 하나님의 품을 ‘그늘’이라고 하며, 그늘(안식)과 그느림(거느림)을 가

38) 김홍호, 『다석일지공부』, p. 60.

39) 유영모, “하계 되게,” 『多夕日誌(上)』, pp. 809-810.

40)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p. 40.

41) 유영모, “속알,” 『多夕日誌(上)』, p. 863.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 “그 품속에 앉아 주는 것이 그느릅이요 이것이 통치(統治)다…그들에는 금이 없다. 갈라짐…싸움이 없다. 제그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자유의 왕국이다.” ‘하나’(하나님)의 그들은 쉬는 것이면서 다스리는 것이고 저마다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품인 그들을 또 이렇게 말한다. “절대세계에는 분열이 없고 문제가 없고 조건이 없다. 거기서 영원한 평화만이 깃들이는 그늘이요 완전과 성숙이 영그는 영원한 그늘이다.”⁴²⁾ 제가 저를 다스려서 스스로 서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성숙한 사람은 제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다스려서 승화하고 고양시키며 스스로 충족시키고 실현시킨다.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처리하는 사람은 자립과 독립을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신과 남의 주체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화와 파멸에 이른다.

전쟁과 폭력이 주도한 민족국가주의를 청산하고 세계평화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동서 문명의 통합과 세계평화의 이념에 대한 철학이 요구된다. 사회주의사회의 실패를 딛고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맘과 얼이 통합되고 속이 뚫려서 자발적 주체성과 공공적 헌신성을 지닌 새 인간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탐욕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늘의 빈방한데에서 돈과 힘과 기술을 이치와 필요에 따라 바르게 씌으로써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자유인이 나와야 한다.

42) 유영모, “깨끗,” 『多夕日誌(上)』, pp. 843~844.

Ⅲ.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

고대사회에서 국가가 생겨난 이래 수 천 년 동안 국가는 안으로 민에 대한 폭력적인 통치를 통해 민을 억압하고 지배해왔으며 밖으로 다른 국가들과 전쟁하면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가는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들과 집단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했듯이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기관이다.

현대의 민주국가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침략과 부당한 개입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버가 말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기관으로서의 국가이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민주화, 과학화, 지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대세계에서 국가의 본질과 목적은 세계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의 전망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해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두 가지 관점에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기관으로서의 국가이해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과 주권자로서 진정한 통치권자다. 국가의 통치권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통치는 국민주권을 앞세운 민주적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모순된다. 국민에 대한 민주국가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국민 자치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대의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평등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통치여야 한다.

둘째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소통하는 지구화 시대에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전쟁과 폭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가 이해는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주권과 군사력이 다른 국가들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해는 점차 시대착오적인 낡은 국가 이해가 되고 있다. 민주화와 세계화가 실현되는 21세기에 세계 정의와 평화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제 민주국가의 주권과 군대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의 주권과 군대는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는 권한과 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전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국가의 전쟁과 폭력은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주권과 군대의 목적과 사명은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기관이며,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보호하는 단체다. 이런 국가이해를 전제할 때 민, 삶, 맘, 정신, 하늘의 평화를 추구한 유영모의 평화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유영모의 평화사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어떤 교훈과 지침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유영모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저마다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귀일(歸一)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시사해 준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남한사회가 하나로 되어 평화롭고 통일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남한사회가 분열과 갈등, 대

립과 적대로 가득 차 있으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수 없다. 서로 다른 주체들과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는 획일적으로 동일한 전체 사회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유영모가 말한 ‘하나로 돌아감’은 서로 다른 집단들과 주체들의 서로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에 이르는 것이다. 욕망과 감정, 주장과 관점, 생각과 이념의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됨에 이르는 것이 유영모가 말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남한사회가 하나로 돌아가서 서로 다름 속에서 서로 다름을 넘어서 하나에 이를 때 남한과 북한 사이의 막힌 벽을 뚫고 평화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 유영모가 말한 ‘하나’는 하늘로 상징되고 표현되는 깊고 높고 큰 하나다. ‘하나’(하늘)로 돌아가면 나를 잃거나 버리지 않으면서도 남(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남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에 이르면 남의 입장과 처지에서 남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의 현실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풀고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민의 삶의 평화를 말한 유영모의 평화사상은 민이 주도하는 삶 중심의 평화통일 방안을 시사한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북한정부와 남한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평화 통일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남북한의 민과 민의 삶 중심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남한정부는 북한정부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민과 그 민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고 북한의 민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평화 통일의 주체와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민이다. 북한과 남한의 민이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 평화통일을 실

현하고 완성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유영모는 모든 것을 주체와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물체도 물질의 주체라고 했다. 일과 물건, 기관과 기계, 제도와 체제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북한 지배체제와 권력자도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파행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북한체제와 권력은 그 나름의 역사와 사연을 가진 것이고 현실적인 힘과 정당성을 가진 것이다.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결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을 평가하고 중시하면서도 특수한 북한체제와 권력을 중시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존중하고 진실과 성의로써 돈독하게 대해서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정은과 김여정이 중국으로 망명하지 않고 남한으로 망명할 만큼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연대가 형성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유영모는 한국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민족정신과 문화의 주체성을 가지고 서양의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여 민주적인 평화사상을 확립했다. 남과 북이 한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어온 정신과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을 확인하고 한민족의 삶과 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대화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한민족의 역사적 주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보편적인 정의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한민족뿐 아니라 세계 인류를 위해서 창조적이고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온갖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민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세계 인류가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길에 귀감이 되게 해야 한다. 낡은 봉건질서와 체제, 식민통치, 남북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근현대사는 세계사의 온갖 문제와 과제를 압

축해서 경험하고 극복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세계사의 온갖 문제와 고난을 압축해서 경험하고 극복해온 한국사회가 남과 북의 국가주의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 적대와 불신을 극복하고 민중의 힘으로 정의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가는 것은 민주, 정의,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다섯째 유영모는 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주의 폭력과 지배를 해체하고 민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맘, 정신, 하늘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통일을 구도자적으로 탐구하고 실존적으로 체험하였다. 그가 실존적 체험적으로 확립한 평화 통일의 사상은 모든 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유영모와 함께 그가 개척한 생명 철학적 민주적 평화사상을 공부하고 체득하고 실천한다면 평화 통일의 지름길이 열릴 것이다.

■ 접수: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 2018년 5월 24일

【참고문헌】

- 김민수 · 홍웅선 편. 『다목적 종합 국어사전』. 서울: 어문각, 1977.
- 김영일. 『丁若鏞의 上帝思想』.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김홍호. 『다석일지공부』 제6권. 서울: 솔출판사, 2001.
- 김홍호 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남경희.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 서울: 아카넷, 2006.
- 마테오 리치. 송영배 외 역. 『천주실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 (下)』. 서울: 두레, 2001.
-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서울: 두레, 2002.
- 박영호 엮음.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 씨알의 메아리』. 서울: 홍익재, 1993.
- 박영호 엮음. 『다석 유영모 명상록』. 서울: 두레, 2001.
- 박재순. 『다석 유영모-동서사상을 아우른 생명철학자』. 서울: 홍성사, 2017.
-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 에마뉘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12.
-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9.
- 유영모. 김홍호 편. 『多夕日誌 (上) · (中) · (下)』 (영인본). 1982.
-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 유영모. “굿 끝 나 말씀.” 柳永模.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깨끗.”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꽃피.”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남녀(버들푸름41).”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매임과 모음이 아니!”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부르신지 38년만에 믿음에 들어감.” 김홍호 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노리.”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소식2.” 김홍호 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유영모. “속알.”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우리 아는 예수.” 『多夕日誌 (上)』. 1982.
- 유영모. “저녁찬송.” 김홍호 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유영모. “제자 함석헌을 말한다.” 『올다이제스트』. 1964년 12월호.

유영모. “정(2).” 『多夕日誌 (上)』. 1982.

유영모. “짐짐.” 『多夕日誌 (上)』. 1982.

유영모. “하계 되게.” 『多夕日誌 (上)』. 1982.

유영모. “하나.” 『多夕日誌 (上)』. 1982.

윤사순.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열음사, 1986.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 影印刊, 1982.

최원극. “유영모 스승.” 『새벽』. 1955년 7월호.

함석헌. “세계구원과 양심의 자유.” 『함석헌전집』 9권. 서울: 한길사, 1983.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ti*, la Haye: Maritinus Nijhoff, 1961.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ed.) Matthew Evangelista, *Peace Studies: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1, New York: Routledge, 2005.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1966.

The Peace thought of Daseok Yu Youngmo
: Dissolution of nationalistic violence and establishment of
democratic peace thought

Park, Jaesoon (Ssial Study Institute)

Abstract

Yu Youngmo lived in the period of war & violence by nationalism, and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by the people education of Ahn Changho and Lee Seunghoon. He established democratic peace thought. He sought democratic peace by denouncing the domination of absolute state over people and laying people over state and realizing the *juche*[主體, free subject] of people. He also sought peace of life that actualizes the nature and principle of life against the violence and domination of militaristic nation and materialism value. He arrived at the freedom and peace of mind through breaking out of nationalism agitating and reinforcing desire and emotion of people for the state. He also arrived at the unity and liberation of philosophy and thought from the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thoughts and idea by the nationalism. He sought realization of freedom and peace of heaven that overcomes the nationalism pursuing domination and conquest over the earth and brings the *juche* and the whole of people to perfection. Yu Youngmo does not aim at the artificial forced unification but the natural, peaceful unification by

emphasizing returning to unity over unification.

Key words: peace, democracy, life, mind, spirit, heaven, unification

박재순(Park, JaeSoon)

안창호,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 하고 있다. 한신대 연구교수,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거쳐 함석헌기념사업회 씨울사상연구회(현재 씨울사상연구원) 초대회장, 씨울재단 상임이사겸 씨울사상연구소장을 지냈다. 저서로 『다석 유영모』(현암사, 2008; 홍성사, 2017 개정판),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홍성사, 2015) 등이 있다.

